옥천이 던지는 화두
- 지역 · 농업 · 농촌

황민호 | 마을연구소 안남 뿌리연구원

옥천순환경제공동체의 태동

모일 틈이 없다. 얼굴 맞댈 시간이 없다. 없이 사는 사람들, 그나마 최저임금이라도 벌어가며 한달살이 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이렇게 모이는 것은 서로에게 잠시나마 힘이 되어주고 싶어서이다.

옥천군내 각 초중고등학교를 돌면서 청소하는 새로이크린 식구들, 옥천군 예비사회적 기업이다. 어제 옥천순환경제공동체 모임에 새로이크린 박홍희 과장님이 늦었다. 늦은 이유는 나이 지긋한 박영순 대표님이 입원하셨기 때문이다. 일흔이 넘는 나이에 남들 같으면 손주보는 재미에 푹 빠졌을 할머니가 같이 더불어 살자는 새로이크린 대표를 맡으면서 많은 직원들과 같이 건사하며 힘겹게 살아내고 있었다.

아이 다섯에 장모님까지 모시고 사는 예비사회적기업 새로이건축 추병우 대표님은 정작 집을 짓거나 수리하는 일을 하고 계시면서 정작 단칸방 살이 하면서 자기 집 수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몸도 성치 않아 몇번 병원 입원을 하시더니 또 건축 현장에 나오셨다. 추운 겨울 동료들과 자재를 나르며 부수고 만들면서 현재 안남면 배바우작은도서관의 북카페 공사를 하는 중이다.

싸늘한 바람이 오가는 겨울 노점은 그 체감 온

도가 더 서늘하다. 오가는 사람이 없을 수록 사람의 온기마저 없어 마음 한켠이 더 추워지는 것이 겨울 노점이다. 거리를 전전하시다 이제야 저렴하게 공설시장 한 켠에 둥지를 트신 어르신들,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을 해도 때부자 되는 것 아니다. 그냥 부대끼며 사는 것이다. 파장하면서 같이 모여 소주 한잔 드신다. 그래도 의지할 것은 서로 밖에 없다고 같이 한번 힘을 모으자고 협동조합을 만들 생각을 하고 계신다.

후미진 곳,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락모락 빵의 기운이 넘실댄다. 정말 더디지만 그래도 제대로 하얀 빵모자를 쓰고 몰입하며 일한다. 효율로만 따지면 당장 문을 닫고도 남지만 얼키설키 서로 모자란 부분 채워가며 한빵 한빵 만들어가고 있다. 옥천장애인보호작업장이다. 일자리보다는 사실 보호 개념이라고 말하는 오재훈 원장은 내년도 쓰레기봉투 제작사업을 공모로 따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싱글벙글하고 있다. 그리고 옥천읍내 빵 매장을 하나 더 만들 생각을 갖고 있다. 그 화려한 뚜레주르나 파리바게트와 비교해서는 세련되지도 못하지만 그냥 정직함으로 지역에서 승부할 생각이다. 동정이나 시혜를 바랄 생각은 절대 없다.

옥천살림, 옥천의 먹을거리 살림을 건사하기 위해 농민들이 2008년 직접 만든 영농조합법인이다. 지역 내 친환경농산물을 모아내어 지역 내 유통을 하는 로컬푸드 전진기지이다.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아무리 번듯하게 잘 만들어졌다 한들 이들 실행 주체가 모이지 않았다면 그림에 떡이었을 것이다.

학교급식과 어린이 급간식을 하면서 수익을 많이 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건강한 먹을거리를 지역에 많이 먹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신다. 땅도 살고, 사람도 살고, 지역도 사는 그런 선순환 농업에 필이 꽂혀 동분서주하고 계시다. 하지만, 이 역시 여의치 못하다. 대표님, 운영이사님 한 달 50만원 활동비로 이래저래 바삐 다니시고 노동자들도 상황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괴물같은 유통구조에 싸우면서 지역에 하나 둘씩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되찾아오는 작업이 그리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다 예감한 일이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올해 10월 옥천순환경제공동체를 만들었다. 서로가 간절하게 필요

한 사람, 의지하고 싶은 사람, 선한 마음으로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같이 모였다. 뭐 모여봤자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시간 뺏기면서 서로 피곤한 일 이야기하는 것 뿐이야 라고 생각하면 일찌감치 깨졌을 모임이다. 서로 빤한 사정 너무도 잘 아니까 그 진정성을 아는 것이다. 그런데 너무들 바쁘다. 그렇게 바쁘면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 하는데 당장 몇 시간 비우면 한달 생계비가 손실이니 정말 귀한 시간들 내어주신 것이다.

이는 관에서 앞장서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서로 모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레 그렇게 결정한 것이다. 앞으로도 그리 갈 것이다. 하지만 고민은 여전히 많다. 아직 조직 정비도 안 되어 있고 내년도에 무슨 사업을 할지도 미지수다. 단순 친목모임만으로는 끌고가기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어떻게든 서로 얼궈매며 좋은 인연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같이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먼저 서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각 작업장 마실가기를 먼저 탁자 위에 올려놓았고 그 다음에 각 작업장의 전 직원들이 함께 모여 공동 워크숍을 가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뭐니뭐니해도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얼굴보고 손잡고 웃으면서 이물없어져야 서로가 통한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다. 딱히 예산이 없어도 되는 일이다. 마음이 통하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겠나. 험난하지만 서로 곁을 내주면서 흔들리는 맘 단도리 하면 무서울 것은 없는 것이다.

낙후지역으로 손꼽힌 충북하고도 옥천군, 그래서 신활력사업이라는 거대 사업을 받아놓고도, 신발전지역사업이라 지정받아놓고도 그 돈 밑빠진 독처럼 술술 빠져 보내는 옥천군과 달리 민(民)은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다지면서 시작하고 있었다. 관은 아직도 무지몽매하게 기업유치라는 신기루에 휘말려 온 힘 다 빼고 있지만, 민은 남아있는 우리부터 같이 돕자는 마음으로 자그맣게 시작하고 있었다.

백척간두, 열악한 지역의 상황

인구 5만여명, 바로 대전과 인접한 농촌인 옥천의 상황은 그리 호락호락한 것은 아니다. 대전과의 20분 내외의 거리로 지역 경제는 이미 안팎으로 거대자본의 빨대로 양껏 빨리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대전과 바로 인접한 국도와 고속도로변에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지켜

서 있고 롯데리아, 뚜레주르, 파리바게트, 최근에는 베스킨라빈스까지 국내외 굴지 대자본들이 이 먹을 것 없는 곳까지 또아리를 틀고 야금야금 빼앗아 가고 있었다. 그 뿐이랴. 구멍가게는 2-3년 전부터 화장을 곱게 한 편의점에게 자리를 내어주기 시작했다. 몇 십 미터 거리를 두지 않고도 각 대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이 그야말로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나들목 주변에는 SK라는 대기업이 주유소와 휴게소를 만들었다. 옥천군은 지역에 대기업 민자 유치로 지역발전에 기여했다고 떠들어댔지만, 그것이 큰 빨대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 거기서 쓰는 만큼 돈은 외부로 빠져나갔다. 사람들은 길이 뚫리는 대로 자본의 빨대가 꽂히는 대로 빨려 들어갔다. 허약한 믿음은 그대로 무너져 버리기 일쑤였고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가면서 카트 굴리는 재미로 다양한 물건보고 담는 재미로 한주를 살아가고 있었다. 그 곳에는 아이들 홀리는 각종 장난감과 영화관, 책방에 책들이 그득했다. 모든 것이 넘쳐났다. 지역에는 왠지 비쌀 것 같고 다양한 물건도 없고 불친절해 보였다.

농업은 어떤가? 마트에 가면 알 수 있다. 마트에는 옥천 농산물을 보기가 하늘에 별 따기였다. 농사지은 것 다 공판장으로 이마트로 홈플러스로, 쇼핑몰로 입점하기 바쁘니 헐값에 도매금으로 다 넘어가버렸다. 심지어 지역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도 지역 농산물 보기가 참 귀했다. 지역농산물 코너를 조그맣게 만들어놓은 것을 갸륵하다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이없다고 해야하는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좋은 친환경농산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생협으로 한살림 전국망을 통해 다 올라갔지만, 내려올 줄 몰랐다. 인구도 적은 지역은 시장이 아닌 것이다. 거기 얼마나 먹는다고 돈이 되겠는가? 이렇게 먹을거리는 어느덧 상품이 되었다. 유통되고 소비되는 현실은 지난한 농업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지역에서도 살피지 못하는 농업은 언제나 을이 되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흥정해서 무조건 깎아내리는 상품이 되었고 농촌은 그야말로 공장이 되었다. 단일품목 대량생산, 규모화하여 생산원가를 줄이는 일, 그러면서 블로그를 만들고 쇼핑몰을 만들고 홈페이지를 만들어 기발한 홍보 마케팅으로 억대 농부를 꿈꾸라고 이 나라는 이 자치단체는 그렇게 가르쳤다. 그렇게 먹을거리는 상품이 되어 돈 되는 품목만 살아남았다. 일상적으로 먹는 양파, 당근, 대파는 우리 농산물을 보기 힘들었다. 땅은 지역이 점 찍어놓은 나라가 규정해 놓은 작목으로 특화해 포도로 뒤덮여 갔는데 이 나라는 FTA다 뭐다 아무런 상관없이 매국협정을 맺으면서 폐원하라고 문 닫으라고 강권했다. 경쟁력없는 농부들은 일찌감치 문 닫으라고 땅

내놓으라고 강권했다. 평생 땅만 파고 온 나이든 농부한테 돈 몇 푼 줄테니 쉬라고 권했다. 이를 보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정말 모를 일이다.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주민의 힘으로 제정되고 실행되려다 보니 지역의 농업 상황이 너무도 빤히 보였다. 학교급식은 아이들 먹을거리 밥상으로 우리의 밥상 그대로였다. 식단 메뉴에 자주 오르지 않는 포도, 복숭아는 지역에 넘쳐 나는데 정작 자주 먹는 파와 양파, 당근 등은 구해 볼 길이 막막했다. 그렇다고 관에서 나주처럼 학교급식 생산단지를 만들지도 않았거니와 그것은 민이 원한 것도 아니었다. 농민들은 지역 자급농업에 대해 스스로 생각했고 이를 어떻게 건사할 것인지 고민한 것이다.

민에 기반한 투쟁과 대화 – 옥천 농정민주주의의 역사

"옥천은 농정과 지역발전에서도 여러 선진지에 비해 내세울 특이점은 없는 편이다. 튼튼한 협동조합의 뿌리를 가진 원주시나 잘 짜여진 계획을 통해 빠른 성장을 보이는 완주군, 마을의 내재적 발전 역량을 지속적으로 배양해 온 진안군, 교육과 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한 홍성군 등 여러 선진지와 비교하면 평범한 과정을 거쳐 온 것이 옥천군 지역농업발전 모델이라고 하겠다. 특별할 것 없는 지역에서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역과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상식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삶의 흐름에 맞춰 지속적으로 풀어가는 평범한 방식이 이른바 '옥천방식'의 대표적인 작동원리라고 할 수 있다"(자치와 연대로 만들어가는 지역공동체: 옥천군의 실험. 2012, 8.31 농정연구센터 발제문, 주교종, 윤성희, 황민호 공저 중 일부)

이처럼 완주군이 의지를 가진 군수와 컨설팅 기관의 연대체로 구성된 중간지원조직의 지원, 진안군이 별정직 공무원의 혜안으로 인한 귀농지원정책과 마을 살리기 정책의 결합으로 이뤄지고 원주가 장일순, 지학순 등 역사적 인물에 기반한 협동조합 역사의 맥락과 홍성의 홍동 농촌 농업 역시 이찬갑, 주옥로가 만든 풀무학교의 역사에 기인한다면 옥천의 역사는 별반 특징지워질 것도 새로울 것도 없는 상황인 것이다. 옥천은 더 열악한 환경이었다. 농민운동 조직의 씨앗인 옥천군 농민회는 1990년 다소 늦게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명

맥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3개면 지회 이외에 확장성이 떨어지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인근 보은군과 영동군이 화려한 투쟁의 역사를 자랑한 농민회가 아예 없어진 것을 보면 옥천군 농민회는 가늘지만 길게 지속적으로 내실을 기하며 여기까지 온 것이다.

옥천군 농민회는 옥천 농정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옥천군 농민회는 지역 농업과 농촌을 건사하면서도 순수성만을 고집해 홀로 싸우거나 하지 않았고 같이 연대했다. 한농연, 한여농, 친환경연구회 등의 농업인 단체와 꾸준히 연대의 틀을 공고히 하며 그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들의 싸움으로 전환해 같이 목소리를 냈다.

또한 옥천의 특수성이라면 1989년 군민주로 만들어진 옥천신문이라는 공론장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농민회가 농민연대의 틀을 구성해 이슈를 제안하거나 잘못된 농업정책에 대해 비판을 하거나 거리에 나와 투쟁을 하면 옥천신문을 통해 고스란히 공론화 됐고 확산됐다. 이런 나름의 작동원리를 통해 주민이 목소리를 내면 신문에서 공론화됐고 자치단체와 의회와는 투쟁과 대화를 번갈아가며 논의구조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처럼 아래로부터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건강한 지역신문의 존재 유무는 지역사회의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또 농촌에 대한 고민도 빼놓을 수 없다. 농업만 부여잡고 돈 잘 버는 농업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농촌을 고민하면서 면단위 자치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 나갔다. 안남면과 안내면의 자치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농민회의 오랜 기틀이었던 안남면과 안내면은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할머니 한글 학교인 안남어머니학교와 안내 행복한 학교를 농민들 스스로 만들었고 도서관과 복지회관 등도 주민들의 논의구조를 통해서 만들었다. 안남면은 지역내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인 지역발전위원회라는 틀을 일찌감치 2006년에 만들어 물이용부담금으로 만들어진 주민지원사업비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몸소 실천하고 있기도 하다.

또 환경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며 지속가능성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지역 친환경 농산

물의 유통을 고민하며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민들이 모여 옥천살림을 2008년에 만들었고 현재 학교급식을 운영하는 생산자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일찌감치 만들어진 대청호 환경농민연대도 물로 맺은 인연으로 하류지역과의 친환경농산물 교류는 물론 농촌체험도 같이 하고 있다.

현재 옥천군에 파견나와 근무 중인 지역농업네트워크 충청지사 윤성희 부팀장은 옥천방식의 작동원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이른바 옥천방식의 지역농업활성화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듯 하다.

첫째, 자치의 정신이다. 이는 스스로 주인되어 방향을 설정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둘째, 연대의 방식이다. 이는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역량에 과도하게 의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셋째, 지속적인 협의에 의한 합의이다. 이는 공개적인 협의를 통해 내부 역량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점을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특정 주체를 중심으로 구심점을 만들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한 방향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자칫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고 일방으로 논의가 흐를 수 있는 위험과 주도적 주체의 영향력에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 추진체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옥천의 지역농업 발전과정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특정 주체 중심이 아니라 관련 주체들이 연대의 방식으로 함께 추진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의 모든 주체는 지역에 대한 본연의 역할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지역의 변화와 발전은 이러한 역할들이 맞물리고 얽혀져 방향성을 가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주체들을 모으고 방향성을 맞춰 가는 것이 느리면서 가장 빠른 길이다. 지역의 변화는 그 자체로 역사이다.

지역을 사는 사람들은 장구한 시간의 흐름속에서 서로간의 관계 맺음을 통해 스스로 거대한 흐름의 일부가 되어간다. 살며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방향을 잡아간다. 많은 사람들이 열어놓고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면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흐름이 만들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조급해 하지 않는다. 옥천은 그렇게 살고 있고 나아가고 있다."

똘똘한 군수, 의원, 공무원이 없다면 못 하는가? 우리가 한다.

옥천군은 완주군처럼 의지를 가진 군수나 별정직 공무원, 그리고 중간지원조직, 진안군처럼 열정을 가진 별정직 공무원이 있지도 않다. 원주시처럼 마음을 알아주는 시의원도 없다. 홍성군 홍동면처럼 지역의 회수분인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다. 다시 묻는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농업, 농촌 발전은 요원할 것인가? 똘똘한 군수와 의원을 뽑는 것만이 능사라면 우리나라 농업, 농촌은 더 이상 헤어나올 길이 없고 미래를 그릴 힘도 없어 보인다. 주민참여, 주민자치를 이야기하면서 늘 우리는 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것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다. 변화가 요원하다고 생각해왔다.

법과 제도, 행정과 공무원이 문제였지만 그들만 탓하고서는 그들이 바뀌기만을 기대한다면 아무 것도 바꿀 수 없다.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당당하게 요구한다. 안 되면 싸운다. 공론장을 스스로 만들어 대화를 한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놓지 않고 뜻을 같이 한 사람들과 연대하고 끊임없이 대화하며 협의하며 하나씩 디디지만 만들어 나간다. 더 이상 빼앗기지 않고 다함께 지켜낼 것이다.

거버넌스, 협치 요즘 유행하는 화두이다. 이것이 유행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4년마다 바뀌는 관에 의지하고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된다면 또 다른 관치의 한 유형에 불과할 뿐이다. 좀 더 깊이 들어가 그것의 가치를 잃지 않고 본뜻을 살리려 한다면 주민과 농민이 스스로 나서야 한다.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

이것이 바로 최근 '협치'라는 화두가 던져주는 시대정신이 아닐까 한다.

추신 :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에게 묻는다

그냥 지역에 마을 연구소를 하나 만들고 싶었다. 마을연구소 뿌리연구원이 되고 싶었다. 마을과 뿌리를 귀하게 여기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맨날 서울에서 잘 짜여진 프리젠테이션으로 갖은 감언이설로 공모사업 따내어 기간 동안 혈세 잘 받아먹고 귀신같이 사라지는 컨설팅 회사들 너무 자주 봐왔다. 그들이 만든 보고서는 어디 책장 한

구석에 꽂혀 그 이후로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돈이 되는 공모사업이 있으면 또 어김없이 응모해 지역을 야금야금 갉아갔다. 지역 주민을 대상화 시켰고 무슨 지역을 캔버스인 것 마냥 자기 물감으로 그림을 마구 그려놓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언제든지 접어들고서 떠났다. 아무것도 축적되지 않고 지속가능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사업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나름 농촌과 지역을 위한다는 명목만 달았을 뿐 수탈의 구조는 비슷했다. 지역과 같이 호흡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 같이 평평한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서로의 자산을 기록하고 남기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런데 여전히 준비하고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다.

생계를 건사하기 위해 옥천살림 트럭운전기사를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하고 있으며 주로 군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 옥천에서 나는 친환경농산물을 배송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참 가치있고 보람된 일이다. 사회적 일자리로 박봉이긴 하지만 이 땅에 최저임금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충분히 감내할 일이다. 그리고 옥천살림에서 배려해 준 덕분에 짬나는 대로 지역 농촌을 돌면서 같이 도울 일을 이것 저것 하고 있다.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와 산수화권역과 일을 같이 하고 있으며, 안내 행복한 학교 일을 도와 문집도 만들고 있다. 또 옥천살림의 한 일원으로 옥천순환경제공동체에 참여해 지역의 선순환경제를 만드는데 작은 밑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아이 셋을 키우는 건실한 가장이 되려 애쓰고 있다.